

# 제주도 전통문화자원과 그 활용

-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변성구\*

## (목 차)

- I. 서론
- II. 제주도 전통문화자원 현황
- III. 성읍마을의 전통문화자원과 활용 사례
- IV.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 V. 결론

## <국문초록>

문화산업 시대에 전통문화 자원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원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들어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전승과 민간신앙,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민요, 민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관모공예 3건, 무속신앙 1건, 제주민요 1건 등 모두 5건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민요는 성읍마을에서 전승되는 <오돌뜨기>, <산천초목>, <붕지가>, <맷돌노래> 4곡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민요 8건, 무속신앙과 굿놀이 2건, 전통주 제작기술 2건, 민속공예 5건, 민간신앙 2건, 불교의식 1건 등 총 20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 민요는 농업노동요(<제주농요>, <진사대소리>, <귀리곶보리농사일소리>) 3건, 어업노동요(<해녀노래>, <멸치후리는노래>, <삼달리 어업요>) 3건, 잡역요(<방앗돌굴리는노래>) 1건, 제주도 창민요 1건(13곡) 등 모두 8건이다. 민요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민요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자원이며, 또한 풍부하게 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읍마을은 마을 자체가 국가 지정 민속자료 제188호(성읍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 제주도문화재전문위원

거기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1건(제주민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3건(오메기술, 고소리술, 성읍리 초가장) 등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성읍마을은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결성하고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와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제주민요 정기공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성읍마을은 문화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성읍민속마을'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성읍마을은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읍마을의 사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마을 자치회에서는 민속보존회를 조직하여 전승기반을 확보한다. 둘째,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를 한다. 셋째, 민속보존회 및 기획자는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사업 운영,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축제 개최 등 다각도의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문화재 담당기관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또는 민속보존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전통문화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이벤트로서 지역문화축제의 개최는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할 가치 있는 활용 방안임에 틀림없다. 남은 과제는 전통문화 축제나 생생 문화재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전통문화의 활발한 전승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어 : 전통문화자원,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해녀노래, 성읍민속마을, 민속보존회, 전통문화축제, 문화콘텐츠

## I. 서론

전통문화자원이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고유문화로서 전통문화의 자질과 속성을 지닌 가치 있는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근래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전통문화자원이 문화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를 중시하는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민요, 무가 등 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지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되고 있다.

전통문화는 과거의 산물인 동시에 현재의 문화이며, 미래사회에서도 전승

될 가치를 지닌 것<sup>1)</sup>들이다. 그런 만큼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1999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형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 보급,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sup>2)</sup> 그런데 무형문화재의 활용은 개발논리에 이끌리거나, 관광산업과의 융복합형 산업으로 지나치게 경도된다면 원형 보존의 원칙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활용에 있어서 원형 보존은 곧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전승 현상이 사라진 무형문화재의 경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도 전통문화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올곧은 전승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의 존재양상과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시대에 적합한 전통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해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철학의 부재에서 이루어지는 활용은 전통문화의 파괴와 상실이라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활용의 한계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권오경, 「부산시 민요관련 무형문화재 전승현황과 과제」, 『한국민요학』 제36집(한국민요학회, 2012), 42~43쪽.

2) 한국문화재단 정관 제3조.

## Ⅱ. 제주도 전통문화자원 현황

### 1.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의 존재 양상

제주도는 화산섬이며, 절해고도라는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런 악조건적인 환경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독특하다는 특징을 지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전승으로는 중세어의 어형과 음운이 남아있는 제주어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민간신앙으로는 무가와 본풀이, 굿과 신당, 마을제 등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천지창조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천지왕본풀이가 존재한다. 굿으로는 큰굿과 맞이굿, 놀이굿 등 다양한 의례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신당으로는 마을을 관장하는 분향당과 생업수호신을 모시는 해신당이 특이하다. 마을제는 부녀자 중심의 무속적 분향당제와 남성 중심의 유교적 포제가 공존하고 있다.

세시풍속으로는 제주도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입춘굿놀이가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 음력 팔월 초하루를 전후하여 행해지는 가문 별초문화와 입춘 전 5일간 치러지는 신구간 풍속이 독특하다. 신구간은 신들의 임무교대 기간으로 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수리나 이사를 함으로써 신과 갈등하지 않으려는 삶의 철학이 담겨있다.

제주도 민요 자원은 노동요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승되며 독특한 노래도 많다. 농업노동요로 <밭블리는소리(밭밟는소리)>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며, <밭매는소리>는 <사대소리>, <아웨기>, <흥애기>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논농사요는 서귀포시 대포동과 월평, 도순, 강정, 법환 일대의 좁은 지역이지만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씨레질소리>, <밀레질소리>등이 희귀하게 전승되고 있다.<sup>3)</sup> 어업노동요로는 <해녀노

3)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문화방송, 1992), 224쪽, 230~232쪽. 법환동에서는 <설메질소

젓는소리(해녀노래)가 전역에서 전승되며, <멸치후리는소리>, <갈치낚는소리>, <테배노젓는소리> 등이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의식요로는 장례 의식요가 대부분인데, <영귀소리>, <꽃염불소리>와 <진토굿파는소리>가 독특하다. 유흥요로 분류할 만한 창민요(통속민요) 중 <오돌또기>, <너영나영>, <서우젓소리> 등은 제주 전역에서 흔히 불리며, <붕지가>, <이야홍타령>, <산천초목>, <동풍가>, <신목사타령>, <용천검>, <질군악>, <사랑가> 등은 제주시나 성읍, 조천 등 옛 관청 소재지였던 특정지역에서만 주로 전승되고 있다.

민속공예로는 관모공예, 옹기공예, 불미공예, 초고공예, 석공예 등이 전승되고 있다. 말총의 주산지답게 총모자, 망건, 탕건 제작과 대나무로 갓양태를 결는 관모공예가 일찍부터 제주시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대정읍 신평리, 구억리 등 점토가 풍부한 지역에서 옹기공예가 성행했다. 안덕면 덕수리를 중심으로 가마솥과 볏, 보습 등을 제작하는 불미공예가 전승되고 있고, 정동(땡땡이줄)으로 모자를 결는 초고공예가 한림읍 귀덕리를 중심으로 성행했다. 석공예로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연자매(돌방애), 돌하르방, 액막이 거옥대(방사탑) 등을 제작하는 공예기술이 전승되고 있다.

어로기술로는 해안 조간대의 일정한 구역에 돌담을 쌓아 밀물에 몰려든 고기를 썰물에 가두어 잡는 원시적인 어로기술인 ‘원’이 남아있다.<sup>4)</sup> 또한 모래밭 어장에서 후릿그물로 멸치를 잡는, 제주도의 독자적인 어로기술도 전승되고 있다. 예로부터 해안 마을 사람들은 그물점을 조직하고 멸치후리는 작업을 해왔다. 또 하나 특이한 어로기술은 테우(떼배)에 자리그물을 메달아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줄낚시와 끝낚시에 의한 갈치와 옥돔을 잡는 어로기술도 성행했다. 제주해녀들의 물질은 원시적인 나잠어업으로 2015년 국가중

리>(씨레질소리)가, 도순동에서는 <밀레질소리>가 채록되어 있다.

4) 『제주도지(제7권 문화유산)』(제주도, 2006), 662쪽. 원은 ‘개’라고도 하는 원시적 어로시설의 하나로 경상도 남해에서 행해지는 석방렴(石防簾)과 유사하다. 원은 천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담을 쌓아 만드는데 그 돌담을 원담 또는 갯담이라고도 한다.

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농사기술로는 조 농사에서 수해를 피하기 위한 마간이(마견이) 농법이 특이하다. 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후 씨앗을 뿌려 습해를 막기 위한 농법이다. 씨앗을 뿌린 뒤 비가 내리면 종자의 발아와 함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조의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조를 ‘마맞인조’(장맛비의 피해를 입은 조)라고 하고, 조 농사를 망치게 되었을 때 이를 ‘물마간이’라고 한다.<sup>5)</sup> 비가 많은 경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두벌, 세벌매기까지 밭 매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농사관행이 <밭매는소리>를 풍성하게 했다. 또 조 농사를 지을 경우 바람에 씨앗이 날리는 것을 막고 발아가 잘 되도록 마소를 몰아다 밭을 밟아주거나 ‘섬피(쓰실캐)’로 흙을 덮어주는 관행이 있다. <밭밟는소리>는 이런 조 농사 관행에서 생겨난 노래이다.

목축과 관련하여 목야지 개간과 해충 제거를 위해 겨울철에 목장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목장 불 놓기’를 하는 관행이 있다. 제주의 들불축제는 이 관행을 축제화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여름철이면 마소들을 중산간 지대의 너른 목장에 풀어 방목한다. 말테우리로 알려진 목자(牧子)를 두거나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관리하기도 한다. 마소의 주인들은 7월 백중에 우마번성(牛馬繁盛)을 기원하는 목축의례로 마불림제(‘테우리코스’ 혹은 ‘쉐맹질’)를 지낸다.

의생활과 관련하여 제주도 농민의 전형적인 노동복인 갈옷을 입는 문화가 있다. 감물을 들인 옷으로 상의는 갈적삼, 하의는 갈중이가 대표적이다. 식생활과 관련하여 ‘즈냥정신’이 만들어낸 ‘보리싹다리’라 불리는 발효음식이 대표적이다. 제주에는 저장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저장식품이라 하더라도 멧젓, 자리젓, 툃말림, 모자반 발림 정도이다. 제주도는 반찬류보다는 국

5) 위의 책, 697쪽. 애월읍에서는 ‘마가지’, ‘물마가지’라고 한다. 제주도가 편찬한 『제주어사전』(1995)에는 마간이(마견이)와 물마가지가 표제어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필자는 마간이, 물마간이처럼 어원을 밝힌 표기를 통일하여 쓴다.

류가 풍부하다. 옥돔미역국, 갈치호박국, 멜국, 성계국, 뭍국, 자리물회 등이 관광상품으로 유명하다. 민속주로는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이 특이하다. 주생활과 관련하여 가옥구조는 제주환경에 맞게 올레와 정낭, 안커리(안채)와 밧거리(바깥채)의 배치, 통시(변소), 우영(텃밭)과 놀굽(난가리 터), 돌담과 방풍나무 등으로 구성된다. 볏짚이 아닌 새(띠)를 덮은 초가지붕과 ‘풍채’가 특이하다. 풍채는 평상시는 차양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만, 바람이 칠 때는 비바람을 막는 방풍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울릉도의 ‘우데기’가 고정형인데 비해 제주의 ‘풍채’는 가동형으로 기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기술인 셈이다.

## 2.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문화재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제2조를 보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뉜다. 또한 문화재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 지정, 도 지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와의 협약을 통해 밝힌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등으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제주도내의 지정 문화재로는 모두 251건의 문화재가 있다. 이 중 국가 지정은 보물 5, 중요무형문화재 5, 사적 6, 명승 9, 천연기념물 37, 중요민속자료 8, 도합 70건이다.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9, 무형문화재 20, 기념물 97, 민속자료 17, 등록문화재 18건 등 181건이 있다. 무형문화재만 보면 국가지정 5건, 도 지정 20건으로 총 25건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6) 권오경, 앞의 글, 43쪽.

### 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도의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갓일(제4호, 1964), 망건장(제66호, 1980), 탕건장(제67호, 1980),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제71호, 1980), 제주민요(제95호, 1989) 등이 있다. 공예기술 3건, 민간신앙 1건, 민요 1건이다.

〈표 1〉 국가 지정 제주도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지정 번호	문화재명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조교	소재지(보유자 거주지)	지정일
제4호	갓일	장순자, 강순자(1940년생)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일도이동)	1980.11.27
제66호	망건장	이수여(1923년생)→강전향	제주시 삼양2동	1980.11.27
제67호	탕건장	김공춘(金功春)→김혜정	제주시 화북1동(제주시 삼양동)	1980.11.27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안사인(1990년 작고), 김윤수(1946년생)	제주시 건입동(조천읍 신촌리)	1980.11.27
제95호	제주민요	조을선(1915년생, 2000년 작고), 강문희(전수조교)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989.12.1

제4호 갓일은 갓모자와 갓의 차양 부분인 양태를 제작하는 기술로 나뉜다. 갓모자는 말총으로 짜는 모자 부분이다. 제주도에서는 일찍부터 양반들의 필수품인 갓모자, 탕건, 망건 등을 제작하는 일이 많아 여성들의 부업으로 자리 잡을 정도였다. 갓모자는 이미 만들어진 말총을 재료를 선별하여 짜는 것인데 비해, 양태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재료를 직접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제66호 망건장과 제67호 탕건장은 관모공예란 명칭으로 도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다가 1980년 도 지정 해지 후 국가 지정으로 승격되었다.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인 영등달 초하룻날과 열나흘날 사이에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바람의 신인 영등신과 요왕[龍王]을 맞이하여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전복·미역 등의 풍등을 기원하는 곳이다. 제주도의 해안 여러 마을에서 영등굿이 행해지는데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을 특별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라 하여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11월 1일 보유단체가 인정되었다. 현재 김윤수 심방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전승하고 있다. 제95호 제주민요는 성읍마을에서 주로 불리는 창민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와 노동요인 〈맷돌노래〉가 제주민요로 묶이어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됐다.<sup>7)</sup>

**나.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민요 8건, 민속신앙과 굿놀이 2건, 전통주 제작기술 2건, 정동벌립장 등 민속공예 5건, 민간신앙 2건, 불교 의식 1건 등 총 20건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래 21호까지 지정되었는데, 제4호인 관모공예가 1980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됨으로써 현재 20건만이 지정된 상태이다.

〈표 2〉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지정 번호	문화재명	보유자 및 전승관계	소재지(현 보유자 거주지)	지정년월일
제1호	해녀노래	안도인(1926년생, 2004년 작고) 강등자, 김영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71.8.26
제2호	영감놀이	이중춘(작고), 이춘옥(전수조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26	1971.8.26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김을정(1922)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73	1990.5.30

7) 이성훈, 『제주도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및 성읍민속마을 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실태』(2016년 한국민요학회 제5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8~39쪽.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노래들은 1971년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민요5수(〈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해녀노래〉, 〈맷돌노래〉)로 지정되었던 것 중에 〈해녀노래〉는 도 지정무형문화재 1호로 남고, 나머지는 1989년 12월 1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다. 도 지정의 경우 기능보유자는 조을선(오돌또기), 이선옥(봉지가), 안도인(해녀노래)으로 3명이었으나 국가 지정이 되면서 조을선은 기능보유자로, 이선옥은 기능후보자로 바뀌게 된다. 또한 창민요 3곡과 노동요 1곡의 혼합형태로 지정되었는데, 왜 창민요와 노동요가 함께 지정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기능보유자의 구연 능력에 맞춰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4호	관모공예 *현재: 삭제	*1980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66호 망건장, 67호 탕건장)로 승격	제주시 삼양동	1971
제5호	송당리 마을제	송당리마을제보존회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86.4.10
제6호	남읍리 마을제	남읍리마을제보존회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1986.4.10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	송영화(작고), 윤문수(보유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86.4.10
제8호	정동벌립장	홍만년(1910년생)→홍달표(1931)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86.4.10
제9호	방앗돌끓리는노래	강원호(1926, 2006작고),김영남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86.4.10
제10호	멀치후리는노래	김경성(1929년생, 2009년 작고) 한성복(전수조교)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986.4.10
제11호	고소리술	김을정(1925)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995.4.20
제12호	고분양태	강경생(2001년 작고)→송옥수	제주시 삼양2동	1998.4.8
제13호	제주큰굿	이중춘→서순실(전수조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26	2001.8.16
제14호	제주도허벅장 (웅기장)	신창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717	2001.8.16
제15호	제주불교의식	문명구(법명: 성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002.5.8
제16호	제주농요	이명숙(2007년 작고) 김향옥(전수조교)	제주시 건입동1044-6	2002.5.8
제17호	진사대소리	진선희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1589	2005.10.5
제18호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허귀2리민속보존회(단체)	제주시 애월읍 허귀2리	2007.2.28
제19호	성읍리초가장	성읍민속마을보존회(단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008.4.18
제20호	제주시창민요	김주산	제주시 아라1동 371	2009.7.29
제21호	삼달리어업요	강성태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리	2013.10.17

제주도는 민요의 섬답게 도 지정 무형문화재 20건 중 8건이 민요이며, 이는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노동요로 농업노동요 3건, 어업노동요 3건, 잡역요 1건이고 유희요로 분류되는 창민요가 1건이다. 의식요는 아직 지정 문화재가 없는 실정이다.

농업노동요는 제주농요(제16호), 진사대소리(제17호),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제18호) 이렇게 3건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농요는 〈밭밟는소리〉, 〈밭매는소리〉, 〈마당질소리〉 세 편을 묶어 지정한 것이다. 〈진사대소리〉는 〈밭매

는소리)의 한 갈래이다. 제주농요의 <밭매는소리>가 <쯔른사대>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널리 불리는 노래라고 한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사대소리>는 애월읍 남읍리를 중심으로 전승되며, 가락이 매우 길고 유장할 뿐만 아니라 장식음이 발달되었고, 가락이 기교적이어서 가창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는 노래이다.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는 애월읍 귀리(현재지명: 하귀2리)에서 겉보리농사 관행 속에 형성된 농요이다. 2007년 <마소모는소리>(마쉬모는소리), <돼지거름밟는소리>(뚫겉름블리는소리), <돼지거름 실어가는소리>(뚫겉름시꺼가는소리), <밭가는소리> 등 네 곡이 지정되어 있다.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어업노동요는 <해녀노래>(제1호), <멸치후리는노래>(제10호), <삼달리 어업요>(제21호) 등 3건이 지정되어 있다. <해녀노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여성노동요로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제주해녀들은 집단적으로 제주를 떠나 본토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진출하여 물질을 했기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제주도 해녀들만이 <해녀노래>를 부르고 있고, '불턱'을 중심으로 해녀공동체를 구성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 구좌읍 하도리에 해녀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해녀노래> 공연과 해녀 관련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지자체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sup>8)</sup> 이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해녀노래>를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sup>9)</sup>이 일찍부터 제안되었으나 아직 이루어

8)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해녀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박물관과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를 2016년 7월 15일~16일 칼호텔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했다.(해녀박물관 보도자료, 2016.7.12.)

9) 2009년 해녀박물관에서 열린 민요학회 제10차 학술세미나에서 좌혜경은 '제주 <해녀노래> 전승방안과 정책 제언'을 통해 "해녀노래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이름을 올린다면 해녀문화를 전승·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민일보, 2009.1.18.). 그 이후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녀노래>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과 세계화를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으며, 2016년 11월 에티오피아에서 열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해녀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멸치 후리는노래>는 백사장이 있는 해안 마을에서 멸치를 잡기 위해 그물을 끌어 당기면서 부르는 집단 어업요이다. <삼달리 어업요>는 어로현장에서 불리는 <갈치늪는소리>와 <테우젓는소리> 등 2곡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어 기능보유자 1인 외에 2인의 일반장학생이 있을 뿐 전승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잡역요는 <방앗돌굴리는노래>(제9호) 1건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연자방아의 옷돌(굴리어 가는 맷돌)과 알돌(바닥돌)을 야산에서 만든 후,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안으로 굴러오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방앗돌굴리는노래>는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주목 받게 되었고, 1986년 도 지정 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창민요는 ‘제주시 창민요’란 명칭으로 1건이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이야흥타령>, <너영나영>, <영주십경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질군약>, <동풍가>, <삼마등동 사랑가>, <느진사랑가>, <스님타령(중타령)>, <용천검>, <술학타령>, <시집살이타령> 등 13곡이 지정되었다.

### Ⅲ. 성읍마을의 전통문화자원과 활용 사례

#### 1. 성읍마을의 전통문화자원 존재 양상

성읍마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조선시대 정의현청 소재지로 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기도 하다. 조선 태종 16년(1416

년) 제주도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을 분립할 당시에 성읍마을은 진사리였다. 세종 4년 1423년 성산읍 고성리에 입지해 있던 정의현성이 진사리로 옮겨와 새로 축성을 하면서 마을 이름도 성읍으로 바뀌었고, 마을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해안 마을인 표선리에서 8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마을에 군현통치의 핵심인 읍성이 설치되어 각종 관아가 들어서면서 행정사무가 집중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읍성 철거령을 내릴 때까지 성읍마을은 제주도 동남부의 역사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처럼 500여 년간 역사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성읍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중산간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해안에 위치한 제주시나 대정보다 덜 개방적이어서 전통문화자원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었다.

성읍마을에는 현재 정의현성과 돌하르방이 남아있고, 2011년 태풍의 내습으로 지붕과 벽체가 일부 훼손됨에 따라 근민헌으로 복원되었지만, 정의현감이 정사를 보던 관청인 일관헌은 1975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백성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던 정의향교는 현재도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생생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의현에서 8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이건은 제주의 생활풍속을 기록한 『제주풍토기』를 남겼고, 이형상 목사는 『탐라순력도』를 남겨 300년 전 성읍마을의 모습과 문화를 그림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정의읍성에서의 군사조련을 점검하는 「정의조점(旌義操點)」, 정의현성 객관 앞에서 노인잔치를 여는 「정의양로(旌義養老)」, 정의현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장면을 그린 「정의강사(旌義講射)」가 그것이다.

세시풍속으로 정소암화전놀이가 유명하다. 삼월 삼짇날 정의현감이 정의현 관내 양반들과 어울려 영주산 서쪽 명승지인 정소암으로 나가 꽃지짐을 해 먹으면서 봄 경치를 만끽하는 봄 들놀이를 즐겼다. 진수성찬의 음식, 관기들의 노래, 양반들의 시구가 곁들여진 품격 있는 들놀이이자 소통의 축제였

다. 특히 기녀들은 〈신목사타령〉, 〈사랑가〉, 〈용천검〉, 〈산천초목〉 등을 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들 노래는 현재도 성읍지역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창민요들이다.

생업 풍속으로 1~2월 겨울철에 행해지던 초가지붕 이기가 성행했다. 야산에서 베어온 새(띠)를 재료로 초가지붕을 새로 이는 작업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행해졌는데, 마을 규모가 큰 성읍의 경우 전통 초가가 많아 초가지붕을 이는 일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초가집을 짓고 이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무형문화재 성읍리 초가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읍마을에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가 고루 잘 전승되고 있다. 발농사 중심의 생업활동에 따라 농업 노동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정의현청의 문화적 산물로 유희적 창민요도 독특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성읍마을의 창민요는 향유층의 전승기반이 탄탄하여 〈산천초목〉, 〈봉지가〉, 〈동풍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용천검〉, 〈중타령〉, 〈질군악〉, 〈사랑가〉 등 많은 창민요들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유난히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들이 많다.

1981년 김영돈이 조사한 자료<sup>10)</sup>에 의하면, 조을선(〈홍애기〉, 〈맷돌노래〉, 〈연자매노래〉, 〈방아노래〉, 〈중타령〉, 〈봉지가〉, 〈오돌또기〉, 〈오강산타령〉, 〈타작노래〉, 〈발밟는노래〉, 〈질군악〉), 이선옥(〈아웨기〉, 〈용천검〉, 〈중타령〉), 이경춘(〈동풍가〉), 김경화(〈질군악〉), 현순옥(〈사랑가〉), 송인선(〈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용천검〉), 송순원(〈달구노래〉, 〈발밟는노래〉, 〈진토 굿파는소리〉, 〈꽃염불소리〉, 〈서우젓소리〉) 등이 성읍의 소리꾼으로 등장하여 주로 노동요와 창민요를 부르고 있다. 특히 조을선은 노동요, 창민요 두 영역의 노래를 두루 섭렵하여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양영자가 조사한 자료<sup>11)</sup>를 보면 이미생(〈밧

10) 『한국구비문화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04~576쪽.

11) 『성읍마을』(성읍마을회, 2015), 624~667쪽.

뿔리는소리(밭밟는소리), <흥애기>, <마당질소리>, <용천검>, <봉지가>, <동풍가>, 이창순(<상사소리(상사디야요)>), <낭꾼치는툰질소리>, <질군악>, <사랑가>, <중타령>, <계화타령>), 현순옥(<출비는소리(뜰베는소리)>), <그레그는소리(맷돌질소리)>, <산천초목>, <신목사타령>, <늦인사랑가>, <오돌또기>, 강문희(<맷돌노래>, <봉지가>, <산천초목>, <오돌또기>), 송순원(<따비질소리(새밭일구는소리)>), <뵈가는소리(밭가는소리)>, <뚝거름뿔리는소리(뚝지거름밟는소리)>), <ㄴ쉬모는소리>, <달구소리(집터다지는소리)>, <흑부르는소리(흑바르는소리, 흑질소리)>, <낭글세와(성벽돌쌓는소리)>, <염불소리>, <진토긋파는소리>, <멀구소리(묘다지는소리)> 등이 주요 소리꾼으로 되어 있다. 25년이 경과하는 사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의 기능보유자였던 조을선(2000년 작고), 전수교육조교였던 이선옥(2007년 작고) 등이 작고하고 이들로부터 소리를 배운 현순옥, 이미생, 이창순, 강문희 등이 주요 소리꾼으로서 노래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은 전승기반은 현재 2002년 결성된 '정의골 소리패'에 의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읍마을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 정의읍성의 중심으로 옛 관아를 비롯하여 전통초가, 향교, 돌하르방, 제단, 민요 등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갖고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읍성의 형태와 제주도 전통가옥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1984년 6월 7일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성읍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 그 외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전통민가(5채)가 국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민요(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맷돌노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도 지정 문화재로는 정의향교가 유형문화재로,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성읍리초가장이 무형문화재로, 정의현성 동문, 남문, 서문에 서 있는 돌하르방 12기가 민속자료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 2. 성읍마을 전통문화자원 활용 사례

성읍마을은 국가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할 만큼 유형·무형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남아있고, 제주전통초가와 읍성이 어우러진 민속적 경관을 잘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마을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성읍마을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삶과 문화,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고,<sup>12)</sup> 근래 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읍마을의 전통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읍마을은 성읍민속마을보존회<sup>13)</sup>를 결성하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sup>14)</sup>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성읍의 민속을 발굴·보존·전승하고 국내외에 널리 선양·소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1986년에 결성되었다. 이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문화공부부장관상 수상), 성읍민속마을보존회 법인승인 신청, 성읍 남문상가 시설 조성(초가 30동), 1994년 제1회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 개최 등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자원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초 주민 화합과 관광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12) 김영돈, 『제주성읍마을』(대원사, 1989).

13) 성읍민속마을보존회 회원수는 설립 당시 72명, 2014년 현재는 179명이다(성읍마을회, 『성읍마을』, 2015, 734쪽).

14) 문화콘텐츠의 정의는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이라는 정의(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12, 161쪽)의 정의,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는 정의(김평수, 윤희근, 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등이 있다.



볼거리와 제주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날 식전 행사로 길트기(영주산풍물패), 용천의 소리 난타공연(성읍초), 제주어연극(성읍초), 연물 및 민요공연(성읍초), 댄스공연(영주선무) 등이 있고, 식후 행사로는 전통국악 초청공연, 연날리기 퍼레이드, 성읍민속마을 전도민요경창대회 및 노래자랑 등이 진행된다. 특이한 것은 어린 세대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전승력을 일찍부터 길러주기 위해 지역 학교 학생들을 축제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날은 본 행사 중심으로 정의현감 부임행차 및 취타대행진, 연날리기 퍼레이드, 개회식, 전통혼례식,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성읍마을 취타대는 전국최초로 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민요 공연은 제주민요 전수조교 강문희와 정의골소리패가 담당한다. 축제 기간에 운영되는 행사 내용을 보면 전통민속놀이 공연 및 체험1부 조팻블리기(조발 다지기), 검질매기(발매기), 출베기(꿀베기), 전통국악초청공연(민요, 사물놀이, 판소리), 전통민속놀이 공연 및 체험2부 마당질(도리깨질), 방에짚기(방아짚기), ㄹ레글기(맷돌갈기), 달구질, 초가장과 집줄놓기 체험 등이 있다.

셋째, 성읍마을은 무형문화재전수관을 2012년 개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성읍의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인 제주민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오메기술, 고소리술, 제주초가장 등의 전승활동 지원,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험교육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는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체험명	일시	장소	교육과정
제주민요 체험	매주 월 15:00~ 17:00	전수교육관 내 민요연습실 및 공연장	〈오돌또기〉, 〈맷돌노래〉, 〈산천초목〉, 〈봉지가〉와 물허벅 장단, 장구 활용 등

오메기술 체험	매주 월 10:00~ 12:00	전수교육관 내 오메기술 교육실 및 체험장	이론 및 동영상교육→누룩 만들기→ 오메기떡 만들기 및 누룩혼합→발효과정→ 오메기술
고소리술 체험	매주 토 10:00~ 12:00	전수교육관 내 고소리술 교육실 및 체험장	이론→누룩만들기→밑술담기(고두밥찌기,숙성)→덧술담 기(밑술과 혼합하기)→고소리술내리기 및 빛은 술 시음

제주민요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이며, 오메기술은 도 무형문화재 제3호이고, 고소리술은 도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된 문화자원들이다. 제주 민요 체험 프로그램은 2002년 창단된 정의골 소리패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단 이래 송심자(1951년생)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제주민요 전수교육조교인 강문희(1974년생)가 민요 전수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제주민요 체험에서는 성읍에서 전승되는 창민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와 노동요 〈땃들노래(ㄹ래 ㄹ는소리)〉를 물허벅 장단을 치면서 배우는 체험을 통해 제주민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체험 프로그램은 기능보유자인 성읍리 김을정(1925년생) 할머니에 의해 일반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메기술 만들기 현장 체험, 고소리술 시음 등을 통해 제주 전통주에 대한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자원의 전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문화로 되살리기 위해 성읍민속마을 보존회는 사업 대상을 성읍민속마을(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정하고, 다음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sup>15)</sup>

〈표 4〉 생생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구성(총괄)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정의현감 행차 재연	-일시 : 2016. 3. 26(토) 14:00 -인원 : 75명(선두마, 기수, 의장대, 현감, 호위군, 군관, 집꾼 등) -운영 : 정의현감 부임 행렬이 성읍1리 사무소에서 출발하여 남문을	

15) <http://seongeup.seogwipo.go.kr/index.php/contents/program/cultural>(성읍민속마을 사이트)

	거쳐 일관년까지 행사	
취타대 거리행진 및 공연	-일시 : 2016. 3. 26(토) 14:00 -인원 : 성읍 취타대(30여명) -운영 : 30여명의 취타대가 정의현감 행차와 함께 일관현에서 남문까지 전통 궁중악기를 활용한 음악 연주 및 거리행진, 공연	
전통민속 재연	-일시 : 2016. 3. 26(토) 14:00 -인원 : 230명 -운영 · 각 반별 전통민속 재연 경연 예)마당질, 조밥블리기, 그레길기(땃돌질), 방에질, 달구질, 검질매기 · 전통음식 무료 시식 : 성읍1리 각 반별 전통음식 체험부스 운영 예) 모물범떡, 빙떡, 모물죽, 오메기떡, 모물만디, 상외떡, 돌레떡 · 오메기술, 고소리술 시음 부스 운영	반별 운영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여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문화를 알릴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생문화재 사업은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sup>16)</sup>에서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덕정 광장과 자연사박물관 광장, 한림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뜰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제주농요 시연 및 전통문화 체험놀이(옛날에 영 허멍 살 이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농요보존회의 생생문화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라면,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맞이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또한 제주농요보존회는 한라예술단원 중심의 소규모 행사라면,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의 생생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의 대규모 행사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제주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하겠다.

다섯째, 인터넷 사이트 ‘성읍민속마을’<sup>17)</sup>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성읍마을의 민속을 발굴·보존·전승하고 국내외에 널리 선양 소개하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문화상품으로 성읍민속마을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16) 도 무형문화재 제16호인 제주농요 전수조교인 김향옥과 전수장학생 김향희가 중심이 되어 생생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7) 성읍민속마을(<http://seongeup.seogwipo.go.kr>)

있다. 메인화면에 “옛 제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전통초가에서 제주민속을 체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전통초가가 즐비한 마을 풍경, 취타대 행진 장면, 정의현성 남문 사진 등을 배경으로 채워놓고 있다. 사이트의 부메뉴는 민속마을소개, 마을안내, 전통민박, 체험프로그램, 커뮤니티 등이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유물, 유적, 지정문화재,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체험가족 소개 및 예약안내, 전통체험 신청, 생생문화재, 영상자료 외에 주변관광 자원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IV.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 1. 제주도 전통문화자원 조사 현황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과제는 바로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조사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다음 단계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통문화자원은 그 특이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 속에 자료 조사와 정리 작업이 꽤 많이 진척되었다. 초기에는 민요와 무속 신화 본풀이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근래 에는 문헌 외에 음향과 영상자료까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대표격인 제주민요의 경우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개인별 조사 자료가 자료집으로 정리되어 나왔다.<sup>18)</sup> 1980년대 이후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문화방송에서 자료의 현장성을 살려 채록하고 자료집을 내게 되었다.<sup>19)</sup> 이와 같은 자료 조사 및

18) 김영삼, 『제주도민요집』(중앙문화사, 1958);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민속연구소, 1968) 등이 있다.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 1981, 1983;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

정리 단계를 거쳐 자료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단계로 옮겨갔다. 제주민요의 자료 조사와 정리는 김영돈을 필두로 조영배, 좌혜경, 변성구, 이성훈, 양영자 등 제주지역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up>20)</sup> 제주무가는 진성기, 현용준, 문무병, 강정식, 허남준 등에 의해 자료집 발간과 연구서 발간이 이어져 연구 물이 축적되었다.<sup>21)</sup>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인터넷 공간을 통한 데이터 구축사업이 이루어졌다. 제주민요는 MBC의 ‘한국민요대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71곡이 제공되고 있고, 브리태니커사에서 『브리태니커 팔도소리 3』 음반을 내어 제주도 노동요 일부와 성읍 지역에서 전승되는 창민요를 수록해 놓고 있다.<sup>22)</sup> 거기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를 구축하여 제주 전통문화유산 관련 된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해 낸 제주 전통문화자원 관련 자료는 제주학의 융·복합적 연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방안 모색 등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요해설집, 1992); 제주도, 『제주의 민요』, 1992 등이 매우 체계화된 제주민요 자료집이다.

- 20)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조약돌, 1983);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 통속민요 연구편(신아문화사, 1991); 『제주도 노동요 연구』(도서출판 예술, 1992); 좌혜경, 『한국·제주·오키나와의 민요와 민속학』(푸른사상, 2000); 이성훈, 『해녀의 삶과 노래』(민속원, 2005);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민속원, 2007);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민속원, 2007) 등이다.
- 21) 대표적인 자료집과 연구서로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큰굿자료사전』(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8);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집문당, 1986); 허남준,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1) 등이 있다.
- 22) 『브리태니커 팔도소리·3』(브리태니커사, 1988)에는 조을선, 이선옥, 김경화, 현순옥 소리꾼으로부터 채록된 봉지가, 중타령, 오봉산타령, 잣은사랑가, 질군악, 계화타령, 동풍가, 오돌또기, 이야홍타령, 서우계소리, 이여도사나, 멀치후리는소리, 발뺌는소리, 김매기소리, 멧돌소리 음향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2.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원 활용 방안

전통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보존단체나 기능보유자들에게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와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들이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목표<sup>23)</sup>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 시대에 맞게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전통문화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문화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낡은 옛 문화가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문화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무형문화재보존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속보존회 단체로 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민요로는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뿐이다. 하귀2리는 민속보존회를 결성하면서 마을 이장이 민속보존회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마을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보존과 전승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하귀2리민속보존회는 2005년 제46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 제56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가문동 이끈코지 원담 역사>를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한 마을이 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민속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2회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귀2리민속보존회가 기획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을 결속시켜온 마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안덕면 덕수리는 <방앗돌굴리는노래>와 <불미공예>가 도 지정 문화재 개인으로 지정되어

23) 강동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민속원, 2006), 191쪽.

있지만, 덕수리민속보존회를 결성하여 덕수리전통민속축제를 현재 25회 개최하여 덕수리 무형문화재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덕수리 〈방앗 돌굴리는노래〉 역시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해녀노래〉는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녀노래보존회가, 〈제주농요〉는 전수조교를 중심으로 제주농요보존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조직 체계가 취약하다. 또한 〈제주시창민요〉는 보존회 대신에 탐라민속예술단을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 중심이어서 전승 및 활용을 위한 확장성이 취약하다. 이외 〈별치후리는노래〉 〈진사대소리〉, 〈삼달리어업요〉는 보존회 조직 자체가 없고, 다만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달리어업요〉는 기능보유자가 고령인데다 전수 조직 체계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문화재에는 민속보존회 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마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지정의 경우 전승 배경이 되는 마을 및 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 보존회 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새로운 문화재 발굴 지정에는 단체 지정으로 정책적 기초를 바꿔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동시에 전통문화의 원형을 찾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은 무형문화유산은 현장전승 기원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현장 전승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전승자들의 기억 속에서 파편들만이 조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읍마을의 문화자원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부터 조사되고 정리된 까닭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제주 전통문화의 경우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학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MBC의 ‘한국민요대전’ 등을 통해 상당량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앞으로 문헌기록, 음향, 영상이 복합된 자료 확충이 필요하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의 경우 수집된 자료를 모아, 노래의 원형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래의 원형은 문화재로서 전승력을 확보하는 전범이 되며,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전통의 굴절을 막는 기본 텍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승 배경과 소리꾼의 생애력, 사설의 해석, 전승 원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전승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의 원형 보전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문화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단순히 전승을 위한 문화재는 박제화된 문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일부 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가 공석이어서 전수조교에 의지한 채 전승활동으로 문화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제주농요보존회의 생생문화재 사업은 전통문화의 활용에 새로운 방안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들 보존회는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관광객과 도민을 상대로 민요 시연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제주농요가 내건 캐치 프레이즈는 “전통을 넘어 현대로”이다. 문화재 전승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류문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문화산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지자체 또는 무형문화재 단체들은 전통문화자원의 상품화에 노력하고 있다.<sup>24)</sup>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노력이 지속되면서 참신한 것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문화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 학술대회 등에 머물러 있다.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성읍마을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민요연습실 및 공연장을 활용하여 제주민요 배우기 체험활동을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지정곡인 〈오돌또기〉, 〈맷돌노래〉, 〈산천초목〉, 〈봉지가〉 등을 물허벅 장단에 맞춰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녀노래〉는 제주해녀박물관에서 매주 토요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녀노래〉 시연을 하고 있으

24)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콘텐츠』, 『한국민요학』 제21집(한국민요학회, 2007), 196쪽.



며, <제주농요>는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토요일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승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진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 개발 활용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전통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제주해녀축제 등이 횡수를 거듭하면서 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하귀2리 귀리걸보리농촌문화축제가 새롭게 생겨났다. 특히 제주해녀축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에 맞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바람축제와 무혼굿, 세화리 해녀항쟁 거리굿, 어촌마을 신당기행, 우도 해녀마을 답사, 마라도 아귀업개 처녀당 기행, 남제주군 사계리 해녀대축제 등 전도적인 거대행사로 치러졌다. 근래 제주해녀축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세계화한다는 취지하에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에는 해녀거리 퍼레이드, 해녀물질대회, 해녀민속경연, 해녀물질체험, 관광객한마당놀이, 향토음식점 운영, 바닷잡이 체험, 포도존 운영 등의 행사가 구좌읍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해녀축제의 경우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추진될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통문화축제는 전통문화의 활발한 전승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단체의 경우 보존회장)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재법 규정과 보유자로서의 의무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 지정에 있어 개인을 기·예능보유자로 지정할 경우 문화재는 ‘개인 유산’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공동 유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교육 기능이 부재했기에 일부 보유자들이 문화재를 개인 유산이라는 인식을 하고, 가족 중심의 전승에 얽매인 결과, 능력 있는 전수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수생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서

민요의 갈래적 특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민요는 대개 곡은 고정되지만, 사설은 다양하게 생산되며 존재하는 양식으로 사설 운용의 폭이 가장 넓은 노래이다. 많은 보유자들이 고정된 사설을 불러야만 되는 줄 알고, 기계적으로 사설을 고정하여 재생하고 있다. 전수생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할 경우 일부 고정된 사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보유자는 다양한 사설을 구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고정된 사설은 민요의 옛 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물로서는 기능을 상실<sup>25)</sup>한 상태를 보여 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대중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사설을 재창조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런 능력을 지닌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고정된 사설을 인쇄하여 전수생이나 일반 대중에게 암기하도록 하는 방법만으로는 문화재 전승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불어 기능보유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수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V. 결론

문화산업이 강조되는 시점에 전통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특히 무형의 문화자산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전제로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원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성읍민속마을의 사례를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전승과 민간신앙,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민요, 민속공예, 생업기술, 의식주,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관모

25) 강등학, 앞의 책, 158쪽.

공예가 발달한 역사·문화적 특징으로 갯일, 망건장, 탕건장이, 무속신앙과 관련하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노동요와 창민요가 풍성한 제주도 민요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제주민요(〈오돌또기〉, 〈산천초목〉, 〈붕지가〉, 〈맷돌노래〉)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민요 8건, 무속신앙과 굿놀이 2건, 전통주 제작기술 2건, 민속공예 5건, 민간신앙 2건, 불교의식 1건 등 총 20건이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 중에 민요를 살펴보면 어업노동요(〈해녀노래〉, 〈멸치후리는노래〉, 〈삼달리 어업요〉) 3건, 농업노동요(〈제주농요〉, 〈진사대소리〉, 〈귀리 걸보리농사일소리〉) 3건, 잡역요(〈방앗돌굴리는노래〉) 1건으로 노동요는 7건이며, 창민요는 제주시 창민요 1건(13곡)이다. 민요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문화자원으로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 단위로 살펴볼 때, 성읍마을은 마을 자체가 국가 지정 민속자료 제 188호(성읍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기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1건(제주민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 3건(오메기술, 고소리술, 성읍리 초가장)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성읍마을은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결성하고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와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제주민요 정기공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성읍마을의 문화, 역사, 무형문화재, 문화축제, 생생문화재, 전통가옥 민박 체험 등에 민속마을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읍민속마을’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성읍마을이 전통문화자원을 유의미하게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성읍마을의 사례를 통해 첫째, 무형문화재보존회 조직과 활성화 지원, 둘째,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자료 구축과 원형 연구, 셋째,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사업 운영, 넷째,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축제 개최, 다섯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대상의 소양교육 실시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전통문화 자원을 문화상품으

로 활용하는 이벤트로서 지역문화축제의 개최는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할 가치 있는 활용 방안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축제나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이 전통문화의 활발한 전승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성읍마을』, 성읍마을회, 2015.
- 『제주도지』 제7권(문화유산), 제주도, 2006.
- 『제주큰굿자료』(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클굿),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권오경, 『부산시 민요관련 무형문화재 전승현황과 과제』, 『한국민요학』 제36집, 한국민요학회, 2012.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하권: 이론편), 민속원, 2002.
- \_\_\_\_\_,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 김익두, 『한국문화 지역적 ‘로컬리티’의 현대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제45집, 2015.12.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신현옥·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8.
-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콘텐츠』, 『한국민요학』 제21집, 한국민요학회, 2007.
- 조영배, 『제주 노동요 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 최자운, 『무형문화재 지정 민요보존회 활동을 통한 마을 내 민요 전승 가능성』, 『한국민요학』 제35집, 한국민요학회, 2012.8.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of Jeju and its Utility

— Focusing on Seongeup Folk Village —

Byun, Sung-koo\*

In this era of cultural industry, it is very important to utiliz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observing characters and meaning of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of Jeju, and suggests how to promote the resources by giving an example of Seongeup Folk Village.

The natural circumstance of Jeju, being an island isolated from mainland, helped its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to be preserved, including dialect, folk beliefs, seasonal customs, folk plays, songs, craft arts, etc. Five Jeju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 three weaved hat crafts, one local shamanism, and one folk song set — were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Especially, “Odolttogi”, “Sancheonchomok”, “Bongjiga”, and “Maetdolnoraе — *Stone grinder song*,” are four Jeju folk song sets which were passed down in Seongeup folk village and lis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well. In addition, total 20 cultural resources were listed as Jeju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eight folk songs, two shamanism and exorcisms, one brewing skill, five traditional handcrafts, two shamanisms, one Buddhist ritual, and eight folk songs. Eight folk songs consists of three farmer’s labor songs (“Jeju-nongyo — *Jeju farmer’s song*,” “Jinsadaesori —

---

\* Jeju-do Cultural Asset Expert Committees

*Woman's field labor song*,” “Gwiri Geotbori Nongsail Sori – *Gwiri hulled barley labor song*”), three fisherman's labor songs (“Haenyenoraе – *Woman diver's song*,” “Myeolchihurineunnoraе – *Anchovy net hauling song*,” “Samdalri Eoeopyo – *Samdal-ri Fishing Songs*”), one labor folksong (“Bangatdolgul lineunnoraе – *Millstone Song*”), and one Jeju-si *Changminyو*(Popular Folksong) set(13 songs). Forty percent of Jeju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folk songs, which implies that Jeju folk songs are abundantly inherited cultural resources and have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Seongeup Folk Village itself is designated as National Folklore Materials No. 188. Also, the village has one State-designated Intangible Property(Jeju folk song), three Province-designated Intangible Properties(“Omegisul – *millet liquor*”, “Gosorisul – *distilled liquor*”, “Seongeup-ri Chogajang – *Thatched-roof House Artisans*”), etc. To promote its heritage, the village established Seongeup Folk Village Conservation Committee and runs various initiatives to develop and utilize its cultural contents such as Jeongui-gol Folk Festival, Saengsaeng Cultural Resource Promotion, Jeju Folk Song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Program, etc. Also the village provides the Internet website called “Seongeupminsokmaeul(<http://seongeup.seogwipo.go.kr>)” to share its culture contents related information. As we can see, the village is creating high value businesses utilizing its heritage.

The case of Seongeup Folk Village shows a way for utiliza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irst,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of Songeup Folk Village establishes its tradition conservation committee and builds a stepping stone for passing down its heritage. Second, a group of experts builds a database of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and studies further to find the origin of its culture. Third, the committee and promoter bring its utmost to utilize its heritage in diverse ways such as culture business

operation, contents development, festivals and so forth. Fourth,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provide professional level training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conservation committee. In particular,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s is to host local culture festivals which promote its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as valuable products, in connection with tourism business. Remaining task is to support all these efforts to boost local economy and transmit traditional culture.

key-words :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Jeju Folk Song, Jeju Woman Diver's Song, Seongeup Folk Village, Folk Culture Conservation Committee,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culture contents

〈이 논문은 7월 17일 투고되어  
7월 25일~8월 6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쳐  
8월 13일 게재 확정되었음〉